

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(1)



I. 지난 10년간 중국경제의 회고

- II. 중국경제의 과열을 알리는 신호
- III. 베이징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
- IV.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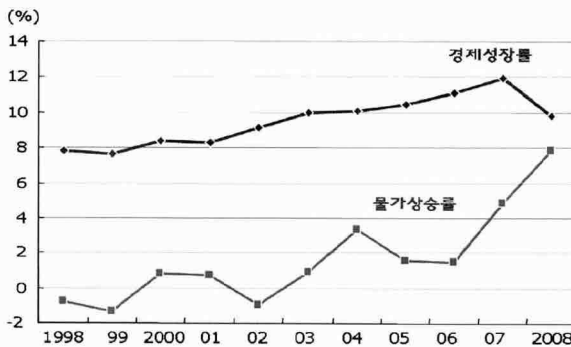
출처 : 삼성경제연구소

I. 지난 10년간 중국경제의 회고

WTO 가입 이후 '고성장-저물가' 시대를 구가

-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경제는 '중국식 新경제'로 지칭될 정도로 '고성장-저물가' 시대를 구가
 - 2002-07년간 연평균 10.4%의 고성장 속에서도 물가상승률은 1.9%의 낮은 수준을 유지
 - 2007년 현재 미국, 일본, 독일에 이어 세계 제4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독일을 근소한 차이로 추격 (2001년 대비 2단계 상승)
 - 세계경제 내 중국경제 비중 : 2001년 3.7% → 2007년 6.4%

〈중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〉



주: 2008년은 추정치
 자료: 중국국가통계국

〈경상GDP 상위 10개국(2007년)〉

(십억달러)		
순위	국가	GDP
1	미국	13,844
2	일본	4,384
3	독일	3,322
4	중국	3,251
5	UK	2,773
6	프랑스	2,560
7	이탈리아	2,104
8	스페인	1,439
9	캐나다	1,432
10	브라질	1,3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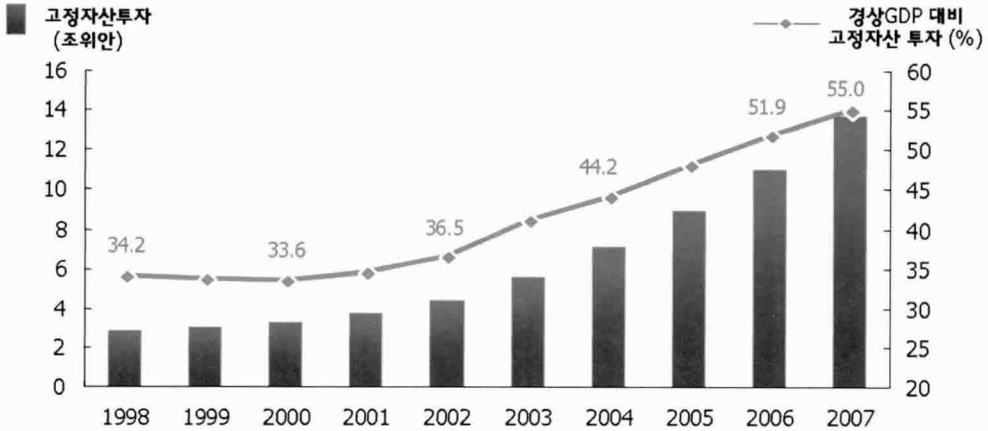
자료: IMF, World Economic Outlook DB

세계경제의 호조와 투자급증이 중국의 고도성장을 견인

- 세계경제가 2003년 이후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한 것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수출확대를 뒷받침
 - 세계경제 성장률(PPP 기준) : 5.3%(2000~02년) → 7.4%(2003-07년)
 - 중국의 수출증가율 : 19.0%(2000~02년) → 30.3%(2003-07년)
- 2001년 베이징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투자 붐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 되면서 고정자산투자가 급증
 - 1978년 이후 재정권한이 강화된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발전과 세원 확보를 외치며 투자를 적극 장려
 - 중앙정부로서도 베이징의 투자는 용인하면서 지방정부의 투자를 제한하기에는 명분이 궁색

- 경상GDP 대비 고정자산투자 비율이 2001년 34.2%에서 2007년 55.0%로 급등(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높은 수준)
-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: 10.9%(1996~2001년) → 24.3%(2002~07년)

〈중국의 고정자산투자〉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

현재까지는 향후 중국경제에 대해 낙관론이 지배적

-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 대해 '지속적인 고도성장이 가능하다' 는 낙관론이 우세
 - "중국경제는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, 내수확대, 하이테크 산업의 발달로 오랫동안 성장세를 이어갈 것."(린이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)

[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론]

- ▶ "중국경제에서 베이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베이징올림픽 이후 국가경기가 하강하지는 않을 것"(류치원 중국인민대 교수)
- ▶ "농촌지역의 도시화 수준이 낮고, 아직 경제발전 혜택을 못 받은 서부지역 개발도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투자열기는 식지 않을 것"(자오사오 베이징과학기술대 교수)
- ▶ "정부가 소비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, 소득수준도 향상됨에 따라 향후에는 소비가 중국경제를 견인할 것"(리이닝 前 베이징대 교수)

■ 그러나 최근 지나친 고속성장에 따른 경기 과열로 인해 ‘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것’이라는 비판론도 등장하기 시작

- “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로 인해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”
(스티브 그린 스탠더드차타드 수석 이코노미스트)

■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만이 나 홀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통해 중국경제의 과열(overheating) 및 경착륙 여부를 진단해볼 시점

- 세계경제의 또 다른 버팀목이자 한국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중국경제가 급락할 경우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



▶ 다음호에 계속

